

금속 비축 제도 관련 일본 출장

2018. 09. 13 - 09. 14

1 출장 배경 및 목적

- (금속비축사업) 금속 비축 사업이란 한국의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에서 한국 주요 산업에 긴요하게 필요한 금속이나 한국에서 채굴할 수 없는 금속을 사전에 비축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말함.
- (출장배경)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금속 비축 사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타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일본의 경우는 산업 지원을 위해 비축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해당 국가의 비축 목적과 시행과정을 점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출장목적) 일본과 같은 경우는 소재 산업이 발달한 관계로 해당 산업에 이용되는 희유금속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산업의 환경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함. 한국이 희유금속을 비축하는 목적도 산업에서의 수급 불안시 이를 공급하는 것임. 이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비축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출장개요

-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일본, 동경
 - 출장기간: '18년 09월 13일(목) ~ 09월 14일(금),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출장자(총 2명)

	이름	소속 및 직책	역할
1	송영관	KDI 경제전략부 연구위원	사업책임자
2	원청연	KDI 경제전략부 전문연구원	연구진

□ 주요활동

- (일본 금속 비축 담당자 면담) 금속비축 관련 정부 유관 기관 담당자 면담하여, 현지의 제도 및 실제 진행 과정에 대하여 논의.

3 출장일정

전체일정

일자	시간	활동내용
9.13 (목)	10:00~11:20	서울(김포) 출발 - 일본(하네다) 도착
	15:00~17:30	JOGMEC 비축 담당자 면담
9.14 (금)	19:35	일본(하네다) 출발 -> 서울(김포) 도착

4 활동내용

1.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면담(JOGMEC)

- 일 시: 2018. 9. 13.(목), 15:00-17:30
- 장 소 : 동경, JOGMEC 본사

□ 주요 참석자

KDI : 송영관, 원청연

광물자원공사 : 정대진, 김동욱

JOGMEC : Takashi Kamiki(부장), Takatoshi Kodama(과장), Yuri Torizawa(과장)

□ 주요내용

1. JOGMEC 주요 역할

- JOGMEC은 일본의 정부 기관으로, 산업에 필요한 희유금속에 대한 수급이 불안해 질시에 해당 금속 물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희유 금속의 관리 대상에 있는 금속 물질은 총 34종으로 해당 품목을 모두 비축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속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비축함.
 - 34개의 광종은 기본적으로 비축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되며, 이러한 모니터링 대상 광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승인이 필요함.
 - 모니터링 대상 광종에서 비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의 필요, 정부요청, 공급 위험 등이 있는 경우임.
- 희유금속에 대한 비축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시행하며, 대출은 매년 시행하고 있음.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진행함.
- 희유금속의 경우 국제가격이 없으므로, 무역통계를 비롯한 일본에서 발표 공시가격을 참고하고 가격을 설정함. 희유금속은 선물시장이 없기 때문에 참조하지 않음.
- 비축 광종 선정 및 구매 방출에 대해서 2018년 이전까지는 매년 계획을 세웠고 광물을 방출할 경우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였음.
 - 2018년부터는 중장기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장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 2010년도 이전에는 보유광종 및 비축량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나, 10년 이후의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인하여 비공개로 전환을 하였음.

2. JOGMEC 비축 과정 및 현황

가. 비축 방식 및 목적에 관한 사항

- JOGMEC에서 비축하는 양은 총 42일이며 민간에서는 18일로 총 60일분에 해당함.
 - 민간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의 비축량을 JOGMEC이 민간으로부터 받아서 참고하여 비축을 하고 있음.
 - 민간의 경우 실제로 18일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더 많이 비축하고 있을 수도 있음.
- 희유금속의 가격 설정 방식은 원칙적으로 발표된 자료들의 가중평균을 이용하며, 비축량에 관해서는 민간의 수급상황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 예컨대, 바라지옴 같은 경우는 철강의 강화에 쓰이는데,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중에 하나임. 해당 금속에 대한 중국에서 수급량 최근 크게 늘게 되면서, 일본에 업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민간의 수요량을 고려하여 비축을 시행함.
 - 중국의 수급변화는 장기적인 충격에 해당하므로, 민간으로부터 60일의 경우 비축기간이 짧다는 의견들이 있음. 하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비축 물자를 방출하며, 60일정도의 기간이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JOGMEC의 물가 안정의 목적으로 비축을 하는 기관이 아니며, 희유금속의 수급불안으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멈추지 않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과거에는 가격 급등시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JOGMEC의 비축 목적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격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함.
- 금속의 보관은 램핑, 플라스틱관에 보관등의 방식이 쓰이고 있음. 금속의 산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분변화가 없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비축 물자를 방출 기준은 3가지가 있으며 각각, 긴급시의 방출, 수급불확실 상황에서 매각, 교환 매각등이 있음.
 - 금속물자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비축 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방출함.

. 민간과의 역할 구분

- JMEC이라는 민간 협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 JOGMEC은 JMEC의 데이터를 받아 보지만, 민간과 정부의 비축은 별개로 움직임.
 - JOGMEC은 JMEC의 민간 비축 데이터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상정한 항목에 대하여 비축을 시행함.
 - 민간 비축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JMEC차원에서 정보제공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JOGMEC에서 개별적으로 업체의 비축현황을 조사함.
 - 민간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비축에 있어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됨.

다. 기타사항

- 일본의 경우는 금속 비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비축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상황임.
- 금속 방출로 인하여 이익이 나는 경우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원금을 상환하거나, 교환 자금으로 활용함.
- 한국의 조달청이 하는 것처럼 상시 방출을 하는 기관은 아님. 가격에 개입한다고 생각될만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향임